

그냥 방치된 초지중 사료포로 전용이 가능하면 과감히 전용하고 경지정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발이라도 과감히 지원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주고 수도답에 사료작물을 이모작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생산의 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력을 위한 조사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만

큼 조사료생산을 지원할수 있는 기계화 지원, 국유지를 지역별로 협업식의 공동 사료포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국의 기후후에 맞는 품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노는 땅없이 국토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농가와 국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조사료 구입에 외화를 낭비하지 않게되고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묵묵히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축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유 동 희
공근낙우회장

원활한 조사료 확보의 어려움이 많다

시기적으로 조사료 사정이 제일 안좋은

8~9월 벼짚도 증분치 못하고 사일리지도 떨어지고

수입건조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니 농후사료급여 비율이 높아진다.

그렇잖아도 무더위에 지친 우군들에게 스트레스를

더해 주는 것 같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 사육에 있어 조사료 중요성은 두말할나위도 없음을 알면서도 무더위와 장마철인 요즘은 농후사료 의존도율이 높다.

3ha에 청예 옥수수 재배해 96. 8. 30일에 사일레지를 담아 11월달부터 1일 급여량 두당 13kg 평균 20두 착유우에만 급여했는데 도 올 7월말에 떨어졌다.

20일정도 있으면 낙농가들의 연중행사 중 제일 큰 일인 사일레지를 담고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날씨는 무덥고 힘든 일이라 이웃 사람들의 신세를 또 져야 한다는 부담감!

다행히 94년도에 조사료 기계화 단지로 선정돼 인력도 적게들고 카터기에 절단할때보다 하베스터는

더 잘게 분쇄해주니 사일레지 품질도 좋아지고 단지회원 다섯 낙농가들이 함께 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니 남의일 같지않고 회원들간에 유대관계도 친숙해지므로 기계화단지 조성에 선정해 주신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느낀다.

8월말경에서 9월초사이 사일레지가 끝나면 유채, 연맥을 서둘러 파종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다. 축사와 인접해 있는 밭 2ha에 유채, 연맥이 푸른물결치는 10월이면 간이 목책선치고 소들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넓은 초원에 덩치큰 우군들이 전기선이 무서워서 일렬로 늘어서서 채식 하는 것을 보노라면 낙농을 하면서 제일 흐뭇함을 느끼는

달이 10~11월이다. 우군들이 이동할 수 없는 밭에는 작년까지는 호밀을 심어 6월달에 호밀 사일레지를 담아 조사료가 떨어지는 요즘 8월달에 급여 했었는데 유지율은 높지만 호소성은 떨어졌다.

제조시기도 출수기에 하면 수분이 너무 많아 등겨나 사료를 첨가해도 부패율이 높고 수분함량이 적을 때 하면 초파기로 끊기지도 않고 사일레지를 담은 다음 진압을 잘 해도 압축이 잘 안돼 그것도 부패가 많아 조사료적 가치로 급여되는 것은 2/3정도 밖에 안 되었다.

호밀 후 작물로 옥수수 파종한 것도 봄에 파종한 수확량에 비해 반정도에 그쳐 올해는 봄에 옥수수를 밭 전체에 파종했다. 사일레지

담그고 후작물로 연맥만 파종해 건초를 하려고 하는데 건조가 문제일 것 같다.

볏짚도 지역에서 소량 구입하는데 수거 시기에 기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산이 높아 서리가 빨리내려 건조상태가 불량 해서 볏짚은 주로 전라도에서 구입해 왔는데 작년가를 볏짚수거 시기에 기상악화로 볏짚이 없어 각처에서 60톤을 구입했는데 건조상태가 보통인것이 40톤 약간 불량한것이 20톤이었다.

그나마도 요즘은 없는가보다. 주

문을 한달전에 했는데도 안 오는 것을 보니...

어렵게 알팔파 수입 건초를 30톤 구입해 급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급이 원활치가 못했다. 시기적으로 조사료 사정이 제일 안좋은 8~9월 볏짚도 충분치 못하고 사일리지도 떨어지고 수입건초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니 농후사료급여 비율이 높아진다. 소는 조사료가 주식인데 농후사료가 주식이 되니 그렇잖아도 무더위에 치친 우군들에게 스트레스를 더해 주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낀다.

하루빨리 조사료 증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수입건초도 농가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급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들한테 요긴하게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2ha되는 초지가 있어 다행스럽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쬰아질때면 시원한 그늘목 아래서 내려 오기 싫어하는 우군들! 마리수에 비해 초지 면적이 적어 임대해서라도 초지조성할 야산이나 넓은 유휴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겨 본다. ☹



윤 민 호

지리산낙농축산연합동조합장

정부의 조사료정책 변해야 된다

조사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투자와 연구, 농가의 피나는 노력이 병행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가격의 연착륙 정책을 쓰는 것처럼 우선 당장 필요한 조사료의 수급을 축산농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제류의 수입쿼터를 당장 풀어줘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하루앞을 내다 볼 수가 없다.

지난해 노동법 파문으로 노사분규가 휘몰아쳐 한차례 혼역을 치르고 이제는 다 지나가나 했더니 한보사태다. 진로사태다. 기아파문이다. 내일은 또 무엇이 터질까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다. 경제부분의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것처럼 요즘 양축농민들의 얼굴도 찌그러질대로 찌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한우 가격은 "끝이 어디인가?"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암소가격은 이미 송아지 생산의 의욕을 완전히 꺾을 수준으로 내려왔고, 숫소는 그나마 수매에 의존하고 있어 다행이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과연 수매가 계속될까? 조바심이 앞서며 양계는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돼지값만이 지난해 많은 자돈의 폐사와 대만의 구제역파동

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현재 우리의 축산 실정이다.

특히 소 부분의 앞날은 정말로 소를 키워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치워야 하는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정말 한우의 정부 제시가격이 적정가격이라면 송아지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또 송아지 생산 농가는 송아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 어느것 하나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더구나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쇠